매일경제

'보안여관'서 사랑을 성찰하다

October 23, 2019 I 전지현 기자

'보안여관'서 사랑을 성찰하다

김기라·김형규 2인전 '×사랑' 다양한 세대 아우르면서 사랑 묻는 퍼포먼스 전시

서울 통의동 대안미술공간인 보안여관에서 중년 남자(배우 김용식)가 확성기를 들고 "사랑합니다"를 열정적으로 외쳤다. 그러다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서 "명명명" 짓는다. 사랑이 개소리라는 뜻일까. 아니면 본인은 개 같아서 사랑을 외칠 자격이 없다는 것일까.

김기라(45) 김형규(36) 2인전 '×사랑'에 걸린 퍼포먼스 영상 작품 '사랑ㄲ-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김기라 작가는 "올해 2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는 나를 발견했다. 예술을 한다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 수많은 분인과 연인, 정치인들이 머물렀던 보안여관에서 사랑을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광화문 사이에 있는 보안여관 주변은 요즘 정쟁과 이념 갈등으로 소란스럽다. 그 혼돈 속에서 예술가들은 잠된 사랑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두 작가는 판소리와 힙합 등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사랑을 성찰한다.

소리꾼 정은혜는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 '심청가' 중 심봉사와 심청의 재회 대목을 들려주고, 래퍼 아날로그소년(본명 이병훈)은 이수일과 심순애가 등장하는 소설 '장한몽'을 랩으로 내뱉는다.

그러나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양복을 입고 눈가리개를 한 채 보안여관 2층 기둥에 묶여 버둥거리는 50대 남자(배우 김선동)는 가장의 비애를 드러낸다. 가족을 위해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가족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기 때문이다.

20대 후반 여자(배우 이선주)가 울고 웃기를 반복하는 영상 작품 '미친×-기억'과 60대 남자(배우 박경용)가 벽에 구멍을 뚫고 타인을 훔쳐보는 영상 작품 '다른 세계의 끝없는 욕심'은 마주 보고 있다. 조울증에 걸린 젊은 여자와 관음증에 걸린 늙은 남자는 각각 사랑의 광기와 비뚤어진 욕망을 보여준다.

1층 전시장 입구에선 60대 후반 부부(배우 이천희·정미경)가 짜장면을 먹는데만 열중한다. 수십 년 살을 맞대고 살면서 사랑 따위는 초월했지만 역설적으로 이 영상작품 제목은 '사랑박사들'이다.

어른들의 사랑은 어렵지만 아이들의 사랑은 쉬워 보인다. 보안여관 옆 신관 지하에서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아홉 살 꼬마(배우 문주빈)가 사랑이 뭔지 들려준다. "여러분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알고 생각하는 사랑의 철학적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로 시작해 소크라테스, 플라톤, 헤겔, 니체, 셰익스피어, 쇼펜하우어, 빅토르 위고, 에리히 프롬 등 전 세계 지성들이 정의한 사랑을 또랑또랑하게 읊는다. 이 사랑 강연의 마지막은 "20세기 유명한 미술 작가 엔디 워홀에게 그의 여자 친구는 사랑을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냐고 사람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그는 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로 맺는다.

김기라 작가는 "어느날 다섯 살 딸에게 '행복이 뭐냐'고 묻자 '먹고 싶은 것 먹고, 잘 놀고, 나처럼 살면 행복이야'고 답하는 데서 충격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다. 아이도 행복과 사랑을 아는데 난 여전히 뭔지 모르겠고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지탱하는 사랑을 돌아본 전시는 뜯겨진 벽과 바닥, 낡은 나무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보안여관의 센 기운에 주눅들고 압고 의미를 잘 전달했다. 1936년 지어진 이 여관은 2004년까지 일반 여관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 대안미술공간으로 변신했다. 연극 같은 영상 퍼포먼스는 지난 10일 개막식에 이어 24일 오후 6시 미술관에서 재연된다. 전시는 25일까지.

문의 (02) 720-8409 전지현 기자

서울 보안여관에서 열린 김기라·김형규의 퍼포먼스 전시 '×사랑'에서 아홉 살 배우 문주빈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헤겔 등이 정의한 사랑을 들려주고 있다.

URL: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9/10/859785/